

무주산골영화제 '넥스트 액터' 변요한

다섯 번째 주인공 선정... GV·스페셜 토크·출판·전시 프로그램 등 진행

싱그러운 초여름 자연 속에서 영화와 함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무주산골영화제' (2023. 6. 2~6. 6)가 '넥스트 액터 NEXT ACTOR'의 다섯 번째 주인공으로 배우 변요한을 선정했다.

자연 친화적 상상력으로 완성된 공식 포스터를 공개해 관객들의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린, 제11회 무주산골영화제가 올해 '넥스트 액터 NEXT ACTOR'의 주인공을 공개해 또 한 번 주목을 받고 있다.

무주산골영화제의 '넥스트 액터'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잠재력 높은 배우를 선정하여 집중 조명하는 배우 특집 프로그램이다. 2019년 제6회 영화제부터 백은하 배우연구소와 함께 공동기획해 처음 선보인 이 프로그램은, 그동안 배우 박정민을 시작으로 고아성, 안재홍, 전여빈을 차례로 선정해 '넥스트 액터'만의 특별한 라인업을 구축했다.

무주산골영화제의 다섯 번째 '넥스트 액터'로 선정된 배우 변요한은 2011년 단편영화 '토요근무'를 시작으로 여러 단편영화와 독립영화에서 다양한 역할을 맡아 배우로서의 단단한 기반을 다졌다. 이후 2013년 첫 장편 출연작 '들개'와 2014년 tvN 드라마 '비밀'에서 개성 있고 안정감 있는 연기를 선보여 재능 있는 신인 배우의 탄생을 알렸다. 2015년에는 두 번째 장편 출연작 '소셜 포비아'로 제24회 부일영화상 신인 남자 연기상과 제40회 서울독립영화제 독립스타상을 수상했다. 이후 SBS 드라마 '육룡이 나르샤', tvN 드라마 '구여친클럽', '미스터 션샤인' 등 TV시리즈는 물론 영화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 '자신아보', '보이스' 등



무주산골영화제 '넥스트 액터' 배우 변요한

에서 대체 불가능한 개성과 뛰어난 연기력을 선보이며 한국영화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배우로 인정받았다. 그는 최근에도 '한산: 용의 출현'을 통해 제43회 청룡영화상 남우조연상, 제58회 대종상 남우조연상, 제31회 부일영화상 남자 올해의 스타상을 수상하며 배우로서 독립적인 가능성을 스스로 증명했다.

무주산골영화제는 "변요한 배우는 비슷한 나이의 동시대 한국 배우 중에서 가장 특별한 개성과 연기력을 가진 배우다. 그는 현

장에서 몸으로 부딪치며 살아온 탄탄한 기본기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본능적인 연기 감각을 확실하게 단련하며 지금까지 성장해왔고, 장편 데뷔 후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끝을 알 수 없는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2023년 '넥스트 액터'의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무주산골영화제의 올해의 선택은 배우 변요한의 능력에 대한 평가 뿐 아니라 기대와 응원의 마음을 함께 담고 있다. '넥스트 액터' 프로그램이, 배우를 사랑하는 관객과 중요한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변요한 배우에게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무주산골영화제는 영화제 기간 동안 배우 변요한이 직접 선정한 3편의 단편영화와 2편의 장편 출연작을 상영하며 GV(관객과의 대화) 및 스페셜 야외 토크도 마련한다. 또한 배우 변요한의 연기세계를 다양한 시선에서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넥스트 액터' 책자(백은하 배우연구소 발간)가 영화제 기간 중 정식 출간될 예정이다. 특히 배우가 직접 제작한 '넥스트 액터' 셀프 트레일러도 6월 2일 영화제 개막식에서 최초로 공개되며, 변요한의 숨겨진 매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전시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배우 변요한을 좋아하는 관객들이라면 제11회 무주산골영화제를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이다.

올해 '넥스트 액터'로 배우 변요한을 선정한 제11회 무주산골영화제는 오는 6월 2일부터 6일까지 총 5일간 무주군 일대에서 개최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박미애 자수장' 전북무형문화재 공개행사

고창군, '제자들과 함께' 주제 고창문화의전당 전시실서 31일까지 공개

고창군은 전북무형문화재 '박미애 자수장'의 공개행사 시연 및 작품을 전시한다고 밝혔다. '제자들과 함께'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2023년 시연행사는 31일까지 고창문화의전당 전시실에서 공개된다.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는 무형유산의 대중화와 보존·전승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보유자가 무형문화재로 인정될 때의 원형을 그대로 시연하는 것이다.

'박미애 자수장'은 45년 이상 전통 자수의 길을 걸어왔으며, 2022년 전라북도무형문화재 제28호 '자수장(민수, 전통자수)' 보유자로 인정됐다. 1900년 어머니로부터 고창자수 공방을 인수받아 운영했고, 현재는 고창전통자수 전수관과 체험장을 운영하면서 자수 활성화 및 후학 양성 등 전통자수의 맥을 이어가기 위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다양한 자수 공예품 60여점 외에 고창지역의 특산물이었다던 '육골침'도 전시되고 있어 의미가 남다르다. 전통 베개인 육



골침은 솜을 넣어 만든 베개가 찌그러지지 않도록 여섯 칸의 골을 넣어 만든 것으로 측면에 화려한 자수 장식이 특징적이다.

전남 나주와 전북 지역에서 주로 혼용품으로 제작되었으며, 박미애 자수장이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한국전통문화전당, 한국공예장인학교 교육생 모집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한국공예장인학교' 운영을 위한 기초반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국공예장인학교는 '손의 도시 전주'의 수공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통공예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장인과 1대1 도제식 교육으로 교육을 이수하면 이후 별도 심사 없이 심화반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는 전통목조각, 색지공예, 부채(단선), 매듭, 지승 등 5개 분야의 교육으로 구성, 14주씩 1·2학기로 나눠 1년간 진행된다.

교육 강사로는 김종연(전북무형문화재 민속목조각장) 장인을 비롯해 김혜미(전북무형문화재 색지장) 장인, 방화선(전북무형문화재 선자장) 장인, 김선애(전북무형문화재 지승장) 장인, 김선자(전북무형문화재 매듭장) 장인이 참여할 예정이다.

교육생 모집은 4월 7일까지다. 한 과목 당 교

육생 수를 5명으로 제한하고, 최종 접수 상황에 따라 교육생 선정 심사도 진행된다.

최종 선정된 교육생은 교육 등록 시 등록금 30만원을 납부해야하나 수업의 80% 이상을 이수하면 다시 반환해주며, 재료비 일부 및 도구는 개인이 준비해야 한다. 또한 이번 기초반 교육을 이수하면 이후 별도 심사 없이 심화반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김도영 원장은 "앞으로 한국공예장인학교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 학교 시스템을 적용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공예산업 전문가 인력양성 학교로 만들어 갈 예정"이라며 "전통공예에 대한 애정을 가진 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당 누리집(ktcc.or.kr)이나 전라사업팀(063-281-1573)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문화재단, '꿈의 댄스팀' 거점기관 공모 선정

무용 예술교육 지원 국비 3억원 확보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2023 꿈의 댄스팀 거점기관 공모사업'에 선정, 향후 5년 간 총 3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정부가 올해 초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에서 발표한 '약자 프랜차이즈 문화예술교육 사업 확대'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무용 예술교육 지원 사업이다.

재단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으로 선정된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꿈꾸는 예술터 전국 1호'인 팔복예술공장을 중심으로 다각도의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거버넌스를 구축해 왔다.

특히, 지역의 안정적인 정착과 확산을 위해 5년 연속 지원 방식으로 추진되며, 3년차까지는 매년 1억씩 총 3억원의 국고를 지원하고, 4년차와 5년차에는 지방비를 매칭하는 조건으로 연 최대 5천만원이 지원된다.

재단은 무용 예술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역의 무용 예술교육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전북대학교 무용학과와 함께 교육 커리큘럼의 연구·개발 과정을 병행한다. 특히 춤과 미디어아트, 융합 예술 콘텐츠를 실험하고자 타 장르와의 협업을 꾀하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 참여 대상은 전주시역 초등학

생 3~6학년이다. 모집된 약 25명의 초등학생은 5월부터 매주 일요일 총 22차시의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후, 쇼케이스와 발표회도 갖는다.

이에 앞서 재단은 지역의 사회·문화적 소외 계층을 50% 이상 우선 모집하기 위해 굿네이버스 전북지원단과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백옥선 대표이사는 "문화예술교육이 우리 지역에서 튼튼하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재단은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과의 거버넌스를 통해 예술교육 전문성과 시민의 접근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최초 전시지원 프로젝트' 운영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도내 거주하고 있는 시각분야 전문 예술인을 대상으로 '최초 전시지원 프로젝트'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개인전 경력이 부족하거나 출산 등으로 예술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예술가들이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술인복지지원센터 사업이다. 이 사업에 선정되면 전시장(예술회관 3층 산마루실) 무료대관과 소장양식의 리플렛 홍보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전라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시각분야 전문 예술인이나, 최근 5년간 경력단절 예술인으로서, 개인전 경력이 없으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전문 예술인이 아닌 취미활동을 하는 개인의 전시는 신청을 제한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이메일(jb_7447@hanmail.net) 또는 방문 신청(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2 5층 예술인복지센터)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예술인복지센터(063-230-7447)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